# '86 協會主要運營方向

86新年을 맞이함에 즈음하여 朴萬鍾 協會長은 新年度 主要運營方向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今年度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協會組織에 대한 權益의 伸張과 會員所得 保障에 최선의 方策을 강구하여 이의 結實을 얻는데 多角的인 힘을 다 기울려볼 作定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會員들의 一致團合된 協調와 支援을 당부하셨다。

朴會長은 定款上 基本機能은 계속적인 事業으로 이어져 나가겠으며 이는 總會에서 事業計劃書에 소상히 전파되짓음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몇가지 力點을 두고 推進해나갈 今年度 主要事業 方向만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는 항상 藥事 단속上에 問題視되고 있는 生藥材 취급관리상 처방단계의 漢藥과의 한계가 分明치 않음으로 因하여 會員中 또는 分事務所長級에서 本意아니게 피해를 보는 例가 왕왕 發生하고 있음으로이와같은 한계를 區分할수있는 法的해석을 關係當局으로부터 確實하게 얻어내어 生藥取扱 및 管理上의 協會 권익을 伸張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읍니다。

박만종 회장

다행하게도 藥事法 2조 5항上에 저촉되는 問題是 正전의는 84年度에 이미 출되어 現在 留保상태에 있기 때문에 相當한 期間이 所要될 것임으로 잠정적인 措置나마 法的 뒷받침을 強化시킬 方策을 여러모로 짜놓았읍니다。

둘째는 生藥材 輸出業務 아달라는 要旨의 건의서를 관계당국에 이미 提出한바 있음으로 今年度에는 이를 관철시키는 最善의 方案을 모색 병행해 나갈 方針입니다。

세째는 初心者나 生産農家를 현혹하는 과장·과대선전 행위를 強力히 억제해 나가겠읍니다。

最近 日刊紙나 기타 메스콤등에 경쟁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廣告行爲로 말미암아 相當한 물의가 야기될 要素가 많음으로 協會는 어디까지나 이에 부응하고 내동하지 말것이며 生産者 보호 지도단체임을 명심할 때 결코 營利에 置重한 과장·과대선전을 하지양해야 하겠읍니다。

이 또한 不過합니다。

이 또한 體系를 바로잡는 分事務所長級에서 本意의 強力한 뒷받침입니다。

現在 生産農家와의 접촉또는 生産量의 現況把握業務를 감안할때 生産指導 會는 어디까지나 이에 부응하고 體系를 단체인 本會기능에 가장密接한 관계에 속한다고 사료되나 現實은 그렇지 못하고 協會는 항상 뒷바라지하는데 不過합니다。

이 또한 體系를 바로잡는 것이 선전 및 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는 協會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地方의 취약점을 利用한 個人이나 또는 過去에 協會에 關與한바 있는 사람들이 協會 명의를 도용하여 간판을 분이거나 남용하면서 一般需要者를 현혹하는 營業行爲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곳에 있다는 報告를 接하고 있음으로 今年度에는 非理行爲 정화차원에서 關係地方官署에 行政措處를 依賴하거나 出張하여 이를 摘發 強力히 是正할 方針임으로 現職에 있는 各級 分事務所長이나 會員들은 이의 是正에 적극 協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生藥 生産資金의 적극적인 施策反映으로 보며 터전을 닦아 갈 때 고향을 가꾼다는것이 이의미가 있는 것이니겠읍니까?』

그는 리동 단위별로 향우회나 애향동우회라는 이름의 모임들이 있고 이들의 고향을 찾아 돕고 힘수도 늘어가고 있다고 전해준다。 그러나 도시에서 웬만큼 생활기반이 잡혀 명절 때 고향을 찾는 정도 차라도 대절해 함께 면 고향을 찾는 것도 의 움직임에 불과한이들의 활동엔 적극적의 미의 가꾸어가는 노력이 남겨 있을 수는없다는 것이다。

**향토사랑에 몸바친 시인**

『한 나무가 어느 흙에 뿌리 박았거나 충실히 햇빛을 받고 국토를 무성하게 하는역할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읍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겠지요。』 한결 아니고 특출난 공적은 없지만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설창수(70) 시인의 35번째를 맞이하여 향토 예술제 개천예술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주최하는 대구 시인으로서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설창수 시인은 남강 청년기 때 잠의원, 문교부 예술과장등 관직을 맡아 1년반 정도 외도를 한 시기를 제외한 해방 이후 한결같이 향토의 막중한 보답코자 하는마음으로 남강 자락에살아왔다는 설창수 시인은 그는 우리땅, 우리고향의 흙을 내가 지킨다는 뜻에서 해방 이후 야학을 만들어 무산아동들을 가르쳤다 또 그가 사는 동네의 이름을 따 「침암 청년대」를 만들어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박해하는 대신 질서를 유지하여 향토 건설을 꾀했다。 촉석루도 깨지고 진주성이 불바다가 되었던 6·25때는 이철 암 청년대가 「공산군과 맞서는 향토예비군」 역할을 해냈다。

「단군 할아버지로 부터 비롯된 역사적 뿌리를 찾아 개천절에 예술 올림피아를 열어나라 할아버지에 감사하는 「개천(開天)예술제」의 제주로서, 진주 의지도적 시인으로서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설창수 시인은 남강 청주현(聽水軒)에 산다。

---

## ⊙고향을 가꿔가는 사람들

**淨化特輯**

고향을 떠난 인간이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문명은 고향을떠나는데서 시작된다」는 학자들의 말을빌지 않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혹은 새 삶의 터전을 찾아 고향을 등진 사람은 오늘날 한국사회를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

그러나 「호마(胡馬)는 언제나 북쪽 바람을 향해 서고 남쪽땅 월(越)나라에서 온새는 나무에 앉아도 남쪽으로 향한 가지를 골라 앉는다」는 옛 시한에서 말하듯 고향에대한 그리움은 어느곳에 살아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들**

봉숭아 꽃잎찧어 물들인 누이의 고운 손톱 빛깔 마루밑에 기르는 개가 반가이 흔드는 꼬리。 낯선 사람도 이젠 경계하지 않고 반갑게 아들이는 순박한 마음。 이처럼 떠오르는 고향의 이미지는 월남한실향민 뿐만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고향을 잊고 사는 모든 도시인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남아가 조용히 살겠다는 여생을 고향에 돌귀거래사의 주인공들은 그래서 초야에 묻혀지내도 늘 관심의 촛점이 된다。

「분도저 시장」이니 「돌격 장관」으로 유명했던 김현옥씨가 지난 81년 경남 양산군의조그만 어촌 마을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사람들의 놀라움은 컸다。 『분에 넘치는벼슬도 해보았지만 역시 내 꿈은 고향의 조그만 학교 선생님』이라며 『농촌의 꿈을 버리지 않는 동심을 키우기 위해 교정을 다듬고 울타리를 치며 여린 학생들과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는 전직 장관의 낙향은 각 신문 사회면의 큰 뉴스거리였던 것이다。 김시장의 시골학교 부임이 관심의 촛점이 되었던 것은 그가 회의 저명인사였던 까닭도 있겠으나 역시 탁월한 골의 화려했던전 날 영화에 비해 뭐가 초라하고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때문이 아니었을까。

마음의 고향이라는동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변두리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귀거래사의 주인공들은 어디까지나 예외적 존재일 뿐이다。

경남 고성군의 한영농후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눈을 뜬 두 서울로 가버렸지요 고향에 남은 나같은사람은 마치 찌꺼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도로 남는 사람이 없읍니다。 가끔 꽁기 좋고 인심 야박하지 않은시골에 돌아와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는 어른들을 보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고향을 가꾸는 큰 줄기는 되지못한다고 생각해요。』

> 고향을 가꿔 나가는 구체적 작업은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관심」이상의 것이 될수 없다는 것이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자기가 뿌리 내린 그곳에서 부터 문제가 해결되어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정화지에서)

즉 군은 면마다 자기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사람이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모두가 떠나는 군마다, 면 촌에도 남아서 고향사정을 자세히 알고 그 변화하는 모습도 지켜보며 터전을 닦아 갈 때 고향을 가꾼다는것이 이의미가 있는 것이니겠읍니까?』

그는 리동 단위별로 향우회나 애향동우회라는 이름의 모임들이 있고 이들의 고향을 찾아 돕고 힘수도 늘어가고 있다고 전해준다。 그러나 도시에서 웬만큼 생활기반이 잡혀 명절 때 고향을 찾는 정도 차라도 대절해 함께 면 고향을 찾는 것도 의 움직임에 불과한이들의 활동엔 적극적의 미의 가꾸어가는 노력이 남겨 있을 수는없다는 것이다。

**향토사랑에 몸바친 시인**

『한 나무가 어느 흙에 뿌리 박았거나 충실히 햇빛을 받고 국토를 무성하게 하는역할을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읍니까。 자기가 딛고 있는 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겠지요。』 한결 아니고 특출난 공적은 없지만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설창수(70) 시인의 35번째를 맞이하여 향토 예술제 개천예술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주최하는 대구 시인으로서 향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설창수 시인은 남강 청주현(聽水軒)에 산다。

---

# 白然生採取(연재)

## 산초 ‖ (山椒)

○○과 명‖예향과
○○속 명‖분지나무
○약용부‖과피, 줄기잎
1、기본‖남부지방각지의 낮은산이나 잡목림속에 자생하는 낙엽성 관목이다。
2、생장적지‖양지바른 산야와 밭이 생장의 적지이다。
3、특징‖잎은 둥근 형이고 늦은 봄에 황록색으로 작은 꽃이 피고 과실은 익으면 자흑색이고 형은 타원형이다。
4、채종‖씨앗은 완숙한 과실에서 채집한다。
5、파종‖씨앗 채취 즉시 파종한다。
6、채취‖6~7월경에 뿌리를 캐내어 껍질을 벗기고 또 지상부 나무껍질도 벗겨서 채집한다。
7、조제‖채취한 수피와 뿌리 껍질을 2~3일간 물에 담가서 콜크층인 겉껍질을 벗겨버리고 속껍질만 잘 말려서 제품으로 한다。
8、이용‖근피와 수피 속껍질은 거담제이며 신경통 등에 사용하고 열매는 기관지염 및 천식에 사용하고 또 열매는 불면증에 유효하다。

## 산치자 ‖ (山梔子)

○○과 명‖천초과
○○속 명‖치자나무
○약용부‖열매
1、기본‖남부지방따뜻한 곳 산중에 자생하는 다년생 나무이다 또 꽃이 피면 아름다운 향기가 있으므로 정원수로도 많이 재배하고 있다。
2、생장적지‖습기가 많은 곳으로 약간 그늘진 곳에 잘자란다。
3、특징‖치자나무는 우리나라 주산지는 제주도 경남 등지이다。 아래로부터 가지가 많이 자라나고 광택나는 짙은 녹색의 잎이 많이 달려서 나무를 덮어 어버리는 것과 같이보이는 나무로서 1m이상자라고 6~7월경에 흰 큰꽃이 많이피며 꽃에는 아름다운 향기나며 꽃이 진후에는 치자라는 과실이 달리며 성숙하면 황홍색을 이룬다。
4、채종‖야생것을분주한다。
5、파종‖3월 하순경에 야생것을 캐다가 분주 이식한다。
6、채취‖11월부터 12월 사이에 황색으로성숙한 과실을 채집한다。
7、조제‖채집한 과실은 그늘에 말리어 제품으로 한다。
8、이용‖이담제로사용한다。 또는 식료염료로도 사용한다。

## 상백피 ‖ (桑白皮)

○○과 명‖뽕나무과
○○속 명‖뽕나무
○약용부‖근피, 수피
1、기본‖산뽕나무 뿌리의 껍질과 뽕나무의 껍질을 채취하여 말린 것을 상백피라 한다。

---

## 의식을 갖자」는 의미에서 건국 이듬해 부터 시작된 개천예술제로서는 지방 예술제로서는 규모로도 가장 크고, 역사로도 가장 오랜영남지방의 종합예술제。 제사장인 설시인은 개천절이 다가오면 흰모시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추고 삼방 물이 모이는 서귀포 앞바다에 나가 물을 뜬다。 전국 49군데 땅에서 첨성단에서 정오 햇빛으로 점화된 성화 햇빛으로 예술제의 막을 올린다。 여기에진주 지방의 학생·문인은 물론 전국의 음악·미술 문화인들이 참여하여 지방문화의 꽃을 피운다。

**새로운 지방시대의 선언**

5·16이후 제단이념 어져 단군을 모신 개천예술제가 그 명분을 잃자 제사장직을 내놓았던 설시인은 작년 3월 지사실에서 남판을 짓고 제단을 복귀, 35회째 개천예술제의 대회장 겸 제사장의 위치로 복귀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른 지방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선현들이 나라 지키려고 피흘린 남강가에서 다른 욕심 없이 40년을 살아왔다』는 그다운 문단의 친구들은 그를 「촌검객」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그의 향토 회귀의 인생관에 기인하는듯 하다。

『남강물 흐르는 동안에는 진주의 개천예술제가 습니다。 결코 쓰러지지않은 진주가 할 수 있지요』 이라는 갖는 향토 얼 다 죽자 투강 자살함으로써 적장을 물리친 논개의 민족혼을 이룸이다。 이같은 향토 얼은 적어도 수백년 혹은 천년 이상의 역사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설창수시인은 젊은 층이 뒤를 이어 호응해야 이 향토 얼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고향을 떠나 도회지 생활에 자리를 잡으면 출세한 것으로 여겨지던 열매 전까지만 해도지방은 도시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뒤처져 있다는 인식을 떨칠 수 없었다。 80년대에이르면서 지방문화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차츰 높아가고 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지켜가는 문화예술인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 지방에서 발행되는 〈예향〉은 향토색 지닌 독특한 지방문예지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으며 각 지방마다활동이 부진하던 향토문학의 발전에 이정표를 세우는 문학모임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모임들의 활동을 통해 작은 도시들에서는 새로운 지방시대 선언의기운들이 일고있는것이다。

예로부터 예향이라불리던 남도의 순천·전주·광주 등에서 국악·미술·사진·음악·연극협회와 문학동우회등이 탄생됨에 따라 지방시대를 여는 지방문화의 태동이 새로이 술렁이기 시작한 것。

**지방문화의 역군들**

순천의 〈순천문학〉은 84년 창간 이래 4집까지 발행, 각계 각층에 기증하고 중앙문단에선도 호평을 받았다。

회원들은 월간지로 발전시키겠다며 의욕이대단하다。 윤철순, 전병선 설재록, 허의령씨 등중앙문단에서 활동했던작가를 비롯, 25명의 회원이 남도의 흙냄새짙은 작품들로 채워내는 〈순천문학〉은 향토문학발전에 기여하는 문학모임。 순천의 최덕천씨는 『〈순천문학〉을통해 활동하는 예술가나 작품의 내용은 순수예술지향에 몰두하면서 향토에 뿌리를 둔 소재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는다。 시장자체가 좁아 전문직업예술인이 드물고, 당초에 향토문화 창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작용한 탓인지 『적어도지방문화만큼은 주제에만충실한 전통을 고수하겠다』는 고집이 역력하다。

그러나 문화창조는 어느 개인이나 소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시민회관이나 도민회관의 시설은 근본적으로 문화창달에 부적합하고 소극장등 문화전용 공간도 부족한점이 많다。 지방시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맞추어 지방문화육성책이 뒤따라야 하는것은 물론이다。

〈계속〉